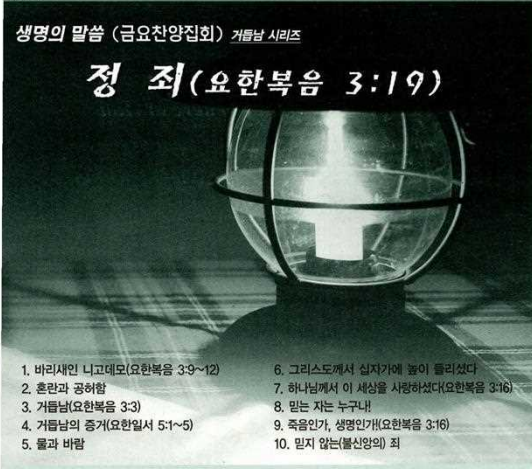




생명의 말씀 (금요찬양집회) 제69일 시리즈

정죄(요한복음 3:19)

1. 배리새인 니고데모(요한복음 3:9~12)
2. 혼란과 공허함
3. 거듭남(요한복음 3:3)
4. 거듭남의 증거(요한일서 5:1~5)
5. 물과 바람
6.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놓이 들리셨다
7.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요한복음 3:16)
8. 믿는 자는 누구냐!
9. 죽을인가, 생명의(요한복음 3:16)
10. 믿지 않는(불신앙의) 죄

예수님은 믿지 않는 죄, 이 불신앙의 심각성을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거절하는 인간을 향해 내려지는 하나님의 선고를 선포하셨다.(요 3:18~19) '정죄'라는 단어는 우리들을 법정 안으로 인도한다. 법정에는 피고자가 있고 증거물이 제시되고 증인이 불려온다. 이런 모든 것들은 재판관에 의해 죄로 정해지고 선고된다. 이러한 모습이 성경 안에서도 그대로 보여진다.(제 20:11~12)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이 법정은 장래에 있을 심판의 날이 아닌, 지금 현재 일이다. 분명히 최후의 심판의 날이 있다. 그러나 그 정죄는 지금 현재이다. 예수님은 정죄가 이미 선고되었으며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들은 피고인들이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기록된 증거가 곧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태도이다. 우리들의 불신앙이 정죄의 선고를 받게 한다. 인간은 본질상 모두 죄인이다.(롬 3:10~12, 5:12)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죄인들을 향해 축복의 말씀을 하신다. 복음 안에는 가장 악한 죄인에게까지도 베풀어지는 전적인 용서가 있다.(갈 3:22,26) 이 전적인 용서에는 분명히 조건이 있다. 이 조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하나님은 영적·도덕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 사랑과 자비와 은총으로 빛을 보내 주셨

다. 이 빛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인간의 가슴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능력을 무너뜨릴 수가 있고 또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가 있다.(롬 5:10) 그러나 인간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요 1:4,9~11) 예수님은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복음을 거절한다고 말씀하셨다.(롬 7:21,23~24 ; 요 3:20)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저주가 임한다.

예수님은 '악하다'라는 단어로 불신앙의 심각성을 강조하셨다.(요 3:19) 심각한 문제는 신앙적인 교리나 종교적인 개념에 동의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을 거절하는 데 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의 행위가 심히 악하고 예수님과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비록 삶의 모습이 사회적인 기준으로 볼 때 눈에 띄게 악한 모습이 아닐 수도 있고 잘 조화된 모습일지라도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 악하다는 판정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은 어떠한 이유든지 그 간에 복음을 거절하는 자가 악하다고 일축하셨다.

한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은 빛을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선언하셨다.(요 3:20) 이는 소수의 사람이 아닌,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변화 받지 않았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좋아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왜 전적으로 회개하며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언가를 더 찾는가? 예수님은 그 이유를 자신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빛은 이미 왔고 예수님도 이미 오셨다. 죄와 물음을 위한 대속의 사역도 이미 이루어졌다. 모든 사람을 향해 구원은 제시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한다. 어두움은 사탄의 왕국이다. 하나님의 빛보다 어둠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이 정죄는 더 이상 논의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결국적으로 여기에는 항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정죄 또한 그대로 남아 있다. 인간 사회의 법정에서 정죄된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새로운 증거가 나올 때뿐이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한 죄인임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복음은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나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어떤 새 것을 가지고 온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신다.(요 6:37)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나 이들의 호소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응답하시어만 한다. 복음을 제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요 3:16)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좋은 소식이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고 또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죄가 있는 곳에 용서와 구원이 있다. 단지 이것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이루어진다.(고전 15:22) 아멘.

장로·안수집사 피택 결정 및 권사 피택 위임을 위한 공동의회

오늘 4부예배 후, 본당에서

오늘 4부예배 후 본당에서 장로·안수집사 피택 결정 및 권사 피택 위임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모든 성도님들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를 거쳐 후보자를 결정하였던 과정이 보철로 중단했던 것처럼 공동의회에도 동일한 은혜가 가득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피택을 위한 최고의 기준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결정이 아닌 믿음의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엡 3:7) 오늘 교구모임은 없으며, 피택자교육을 위한 개강예배가 다음 주일(4월 6일) 찬양예배 후에 있습니다.

- ### 4월 교회 일정
- 6일(주) 피택자교육 개강예배(찬양예배 후) 제7차 CMTC 훈련(찬양예배 후)
 - 13일(주) 제7차 CMTC 훈련 2(찬양예배 후)
 - 16일(수) 총회 교회주변 전도(수요 4부예배 후, 여전교회) 정기당회(수요2부예배 후)
 - 19일(토) 총회 교회주변 전도(오후 2:00, 남전교회)
 - 20일(일) 장애인주일
 - 27일(주) 제2차 학습 및 세계사(찬양예배 시)

금요찬양집회 교구좌석 변경, 4월 11일부터 시행!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골 2:2)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금요찬양집회는 주일예배와 더불어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은혜의 풍요입니다. 복음을 위한 기도제목으로 하나가 되며 <총회 찬양곡집>으로 부르는 찬송은 모든 성도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고후 4:15) 특히 기도과 찬양으로 열린 성령에 채워지는 말씀은 성령의 겸이 되어 모든 성도들을 지도자 정령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특히 금요찬양집회는 교구별 지정좌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자각제가 되어서 교구식구들이 복음의 장지로 나오도록 서로 권면하고, 집회를 통한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의 교구좌석은 지난 2007년 4월, 교구 확대 개편 시에 지정된 좌석입니다. 지난 1년간의 교구별 출석상황과 다양한 행편을 감안하여 교구별 좌석을 하절기 저녁예배 시간(19:30)에 맞추어 새롭게 변경합니다. 각 교구는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마십시오.(벤전 1:13) 매주 금요일이 주말의 시작이 아닌, 주일을 향한 은혜의 시작이 되도록 모든 교구는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히 3:1)

*새롭게 변경된 교구좌석은 본지 7면 참조

하절기 저녁예배 시간 변경 (수요2부 예배 및 금요찬양집회)
4월 9일 수요2부예배 시부터 저녁 7시 30분으로 변경

WHAT IS A MISSIONARY TO DO?

(11) For the Scripture says, "WHOEVER BELIEVES IN HIM WILL NOT BE DISAPPOINTED."

(14) How then will they call on Him in whom they have not believed? How will they believe in Him whom they have not heard? And how will they hear without a preacher? (15) How will they preach unless they are sent? Just as it is written, "HOW BEAUTIFUL ARE THE FEET OF THOSE WHO BRING GOOD NEWS OF GOOD THINGS!" (Romans 10:11-15)

Today's message is about the importance and purpose of missionary work. When Paul, a missionary apostle, wrote to the church in Rome he expressed his deep longing for the salvation of Israel, "Brethren, my heart's desire and my prayer to God for them is for their salvation." (v. 1) Think about the reason you became a Christian. Was it for material blessings, happiness, or even peace? No, you became a Christian because you realized that you were a sinner who was separated from God, and needed to be saved from eternal death. A lot of people go to church to see others and be seen by others, for the educational or music programs, or just for fun because it makes them feel good. Church is about relating with God, not others. It is about salvation, not socialization. Sadly, many of today's missionary programs focus on educating and developing the poor. Their inner desire is to provide food and medical supplies, expand educational curriculums, and build wealth. They miss the most important element of their work, which is the salvation of the people they were sent to serve. Their heartfelt love for others is not spiritually inspired, but worldly oriented. How does someone receive salvation? Is it from food, medicine, or people? No, salvation only comes through a person's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How can those who have not heard the good news believe in Jesus Christ? They need Christian missionaries who actually preach the gospel. How do Christian missionaries preach to the lost? They must be sent!

Christian missionaries must go where the Holy Spirit sends them. Jesus said,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at I commanded you; and lo,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age." (Mt. 28:19-20) Missionary work is about reaching all nations. It demands worldwide vision. It calls for concern for all lost people. So, whether the Holy Spirit sends you across the street or around the world, missionary feet must travel. Missionary feet that go where Jesus calls are beautiful, "How beautiful are the feet of those who bring good news of good things!" (v. 15)

Christian missionaries must preach the gospel. Scripture tells us that whoever believes in Jesus Christ will not be disappointed (v. 11), "For there is no distinction between Jew and Greek; for the same Lord is Lord of all, abounding in riches for all who call on Him; for WHOEVER WILL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vv. 12-13) If missionaries go to give others clothing, food, medicine, money, or shelter then what eternal profit will the lost receive? 1 Corinthians 4:1 says, "Let a man regard us in this manner, as servants of Christ and stewards of the mysteries of God." Paul encountered the lost with two things, "For I determined to know nothing among you except Jesus Christ, and Him crucified." (1 Cor. 2:2) Paul didn't preach about education, economic welfare, or medical treatments. He preached about the love of God, Jesus Christ. Today's missionaries need to see people as God sees them. They need to talk to the lost about our precious Jesus Christ, who died on a cross for our sins. It is such a simple message, yet rarely delivered.

Christian missionaries must witness the gospel through their life. The gospel transforms people. Missionaries follow Jesus, not the world. They do not rely on their own abilities, but instead let the Holy Spirit lead their minds and their mouths. Their actions and speech show others what real peace and real love is all about. Their life illustrates to others that Jesus Christ is with them. It reveals the power of the gospel. Their faith comes across in their attitude and world view. Whenever a real missionary talks to others, somehow and in some way those others are changed because new creatures have an effect on old things. Their witness touches troubled hearts. It makes others either hunger for God's word or gnash their teeth in utter contempt.

When Christian missionaries go where the Holy Spirit leads, preach the gospel, and witness the power of Christ, then others start changing. It is amazing grace! Too many churches focus on human desires and miss out on real missionary work. Paul proclaimed, "For I delivered to you as of first importance what I also received, that Christ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and that He was buried, and that He was raised on the third day according to the Scriptures." (1 Cor. 15:3-4) That is the gospel this church needs to send. That is the gospel that all missionaries must preach. The gospel is all about the good news of eternal life through Jesus Christ. Have you received this gift? Are you willing to share this news to whomever God wants to hear it? My dear friend, are you a Christian? If yes, then Jesus is calling you to missionary work. Go where the Holy Spirit wants, and do not bring anything with you but the message of salvation in Jesus Christ which transformed you into God's child. 

다음 주일 설교

무엇이 전도자의 사명인가?

- ⁽¹¹⁾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¹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리리요 ⁽¹⁵⁾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람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11~15)



김성완 목사

오늘 본문말씀은 복음 전도의 중요성과 목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쓸 당시 그는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롬 10:1)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물질적인 축복이나 행복, 또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죄로 인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고, 영원한 사랑 가운데서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고 또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기도 합니다. 교육이나 음악 프로그램 때문에 가기도 하고, 단지 교회에 가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재미로 교회에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다른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곳입니다. 교회는 진고를 나누는 곳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곳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의 선교방향이 빈민층에 대한 교육과 생활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음식과 의약품들을 제공하고 교육과정을 확대하며 교회의 부를 축적하는 일에 열을 쏟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교회들은 사역에 있어서 ‘영혼구원’이라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이웃 사랑은 영혼구원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유한한 이 땅에서의 삶에서 좀 더 나은 생활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음식이나 의약품, 혹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받습니다. 복음을 들어 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어떻게 복음전도자들이 잃어버린 자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셔야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한다

복음전도자들은 성령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9-20) 선교는 모든 민족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를 향한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또한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케온 이웃에게로 보내든지 혹은 세계 곳곳으로 보내든지 전도자의 발은 그곳을 향해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가는 전도자의 발이아말로 가장 아름답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15절)

복음만을 전해야 한다

복음전도자들은 복음만을 전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11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

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12~13절) 만약 전도자들이 잃어버린 자들에게 의복, 음식, 의약품, 돈, 혹은 쉼 곳을 제공해 준다면 그들이 얻을 영적 이익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4:1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오직 두 가지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전 2:2) 바울은 교육이나 복지 또는 의료정책에 대해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오늘날의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들이 전해야 할 것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단순한 메시지이지만 그것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이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

복음전도자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전도자들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존하지 말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과 입술을 온전히 주창하시도록 설교하게 내어맡깁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진정한 평화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동행하심을 분명하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삶은 복음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삶의 태도와 가치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진정한 전도자가 믿지 않는 자들과 말할 때마다 그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옛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증언은 빈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되든지 아니면 이를 갈며 경멸하게 되든지 둘 중 하나로 나타납니다.

복음전도자들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할 때 사람들은 변화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러나 매우 많은 교회들이 인간적인 욕망에 초점을 맞추느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고전 15:3-4) 이것이 우리 교회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입니다. 모든 전도자들이 전해야 할 복음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 즉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이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식을 들려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기꺼이 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복음 전도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십시오. 그곳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

수요1부예배 메시지(2008. 3. 26.)

영원한 불 (마태복음 25:41)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온 여 아들과 같다 하리니”(마 25:1) 신랑을 맞으러 나온 여 처녀는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한 술기로는 처녀는 다섯 명뿐이었다. 미련한 처녀들은 가장 중요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마 25:2~3) 열 처녀 모두에게 신랑을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혼인잔치에 들어간 처녀는 다섯 명이었다.(마 25:10)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마 25:14)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 각각 달란트를 주었다.(마 25:15) 얼마 후에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 때 주인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힘써 일한 두 종은 주인의 잔치에 참여했지만 그렇지 못한 종은 어둠중에 처했다.(마 25:21,26) 예수님은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셨다.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자신의 진부를 주님께 드러야 한다.

예수님은 두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언된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셨다. 심판의 때에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이 된다.(마 25:31~32)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만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다.(마 25:34) 이것은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작은 자들에게 한 그것으로 결정되었다.(마 25:40,45) 반면에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마 25:41) 이것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해야 한다.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뿐이다.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회개를 촉구하셨다. 특히 위선과 교만으로 가득한 종교지도자들을 강하게 질책하셨다.(마 11:16~17) 세세 요한은 종교지도자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마 3:7)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질책하셨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 4:17)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때문이다.(요 3:36) 지금 우리는 세상을 위해 사는 미련한 처녀, 무익한 종인가? 아니면 천국을 위해 준비하는 술기로는 처녀, 충성된 종인가?

화 있을진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경고하셨다. “화 있을진저 고리산아 화 있을진저 뱃새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들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건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졌느니라 음부에게서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건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마 11:21~24) 여기서 언급된 마을들은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마을들이었다. 따라서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마 10:15) 그런데 이 진노의 심판은 이미 죄인인 우리에게 선고된 것이다.(롬 3:9~10) 이처럼 우리가 죄인일때를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롬 5:8) 죄 사함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죄 사함을 위한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이것뿐이다. “내가 만일 네 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도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롬 10:9)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믿지 않는다면 영원한 불을 피울 것이다. 뒤늦게 후회해서 소용이 없다.(마 16:23~24,26) 이 세상에서의 부호한 삶은 천국을 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고난이 천국으로 가는 데 필요하다.(눅 16:25) “화 있을진저”라는 진노의 심판을 피하기를 원하는가? 십자가를 붙들고 진심으로 회개하자.

주님께서 심판 날에 명하신다 마지막 날 심판주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반대로 명령하셨다. “처자를 받은 자들은 자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에 들어가리라”(마 25:41) 또 요한도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심판에 대해서 상세히 예언하였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마다그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계 20:12~15)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은 회개하고, 재고함을 받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영원한 불못에서 어느 정도 고통을 당하면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면 다시 용서를 받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곳도 아니다. 심판을 받아 불못에 들어가면 그것으로 끝이다. 영원히 끝이다. 그곳에서 사탄과 그의 종개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악인들은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것이다.

“화 여러분은 원수들과 영원히 그곳에 있기를 원하는가?” 지금이라도 회개하자. 회개 외에 다른 방법을 찾지 말라. 자존심과 교만을 버리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로 가자.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사탄은 그 종개들을 이용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할 것이다. 그때마다 더욱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회개하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자. 하늘의 찬송을 부르며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자.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 날!”(찬 168장) 아멘.

마가복음 강해

* 04주 왕조세력기도(사백 440)에서 생생한 일상을 돌출시 합니다.

비유의 목적
(4:10-12)

제자들은 예수님께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였다.(막 4:10) 그 이유에 대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하였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막 4:11~12)고 밝히셨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밝히신 비유의 목적을 두고 오늘날 많은 성경학자들이 논쟁하고 고민하고 있다. 평소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제자”라는 이름 자체도 구원이다.(마 1:21) 또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고 말씀하실 정도로 모든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밝히신 비유의 목적에는 구원과 사랑이 일부 사람들에게만 제한되어 있음을 발견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렸다. “그러나 너희가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유혹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은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롬 11:7~8) 유대인들은 선민이었다. 그들은 메시야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굳게 믿었다. 그러나 정작 유대인들은 메시야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믿지 않았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으며, 그의 제자들을 심하게 핍박하였다.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 선지자들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지만 이 예언을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

는 유대인들은 전혀 믿지 않았다. 우둔한 때문이었다.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기 때문이다. 이 악한 모습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매일 하나님을 찬양 찬미하며 매수리기를 하는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불평을 멈추지 않았다. 시편 기자는 이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이 음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멎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시 69:22~23)라고 간구하기까지 하였다. 유대인들은 구원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지만 구원과 가장 멀었다.

예수님이 밝히신 비유의 목적은 이사가 선지자의 예언과 그 맥을 같이 한다.(사 6:9~10)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과 귀는 아주 것도 깨닫지 못했다. 결국 바울이 밝히고 있듯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이방인들에게 보여졌었다.(행 28:25~28) 천국 문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들어가지 못하던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바로 유대인들이 이같은 처지였다. 선민이었던 그들은 개와 돼지로 전락했다.(마 7:6) 그러나 이들에게도 기회는 있다.(눅 16:16) 동시에 이 기회는 모든 죄인들에게도 열려 있다.(마 17:20~21)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회개뿐이다! 공생애를 시작한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마 1:15)였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복잡하지 않고 매우 단순하다. “믿음”이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다. 우리의 신앙 연륜, 경험, 지식,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내가 너희 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니”(눅 6:20) 우리의 심령에 세상의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롬 14:17)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요 3:3,5)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복음인신 예수님을 믿자.(롬 1:17) 아멘.

내 열정이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고등부 1팀 · 2팀

- ✦ 마을에 교회보다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기도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전희애)
- ✦ "주님을 부정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 주소서." 기도를 드리고 사역을 할 때에 많은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공예현)
- ✦ 전도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뻐했다. 마치 새로 태어난 듯한 표정을 짓는 그 영혼을 보며 무언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쳤다. (임지수)
- ✦ 내 열정이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간구하고 회개하며 준비된 영혼들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였다. (오지혜)
- ✦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곳까지 너를 보냈겠나?'라고 나에게 물으셨다. 이 영혼들을 천국에서 또 보고 싶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심에 감사드린다. (황현정)
- ✦ 사역 이틀째 날에는 처음부터 덩치 큰 개들과 짝잡마 다 문전박대로 인해 자신감을 잃었다. 그러나 내가 있는 곳을 향해 다가오는 한 남자아이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다. 처음에는 피하는 듯해 어깨를 토닥여 주고 눈을 맞추었더니 조금씩 마음을 열고 내가 하는 말과 찬양을 따라부르기 시작했다. 주님은 처음에 문전박대를 당해 잃어버린 자신감을 찾아주셨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을 느꼈 수 있었다. (전준성)
- ✦ 30도가 넘는 날씨와 습한 기후, 음식 등 여러 환경이 정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기도로써 자기부인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개하면서 해내 나갔다.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면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호형)

- ✦ 이번 선교를 준비하고 사역하면서 아무리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내가 하려고 해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유홍)
- ✦ 선교 기간 동안 많이 덥고 힘들었지만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하니 그곳의 썩는 듯한 더위도 우리 팀을 이기지는 못하였다. (홍진호)
- ✦ 전도지를 다 읽으신 나이 많으신 할머니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시겠습니까?"라고 여쭈었더니 "좋다!"라고 대답하셔서 정말 기뻐했다. 영접기도를 할 때에도 두 손을 모으고 진심으로 하겠다. 또한 어떤 아저씨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품으로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 정말 그 가족이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기도했다. (최용현)
- ✦ '나는 내가 열심히 언어를 준비하고 현지인들을 위해 선교를 준비했으니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고, 나는 진심으로 회개하였다. (이지영)
- ✦ 2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선교를 준비하면서 시련을 받을 때도 있었고, 나의 경험을 의지하려고 했던 적도 많았다. 하지만 내 결에는 늘 든든하게 기도를 해 주는 기도동역자들이 있었기에 순간순간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임정아)
- ✦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참조하셨지만 죄로 인해 멀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다. 그리고 그 사신 하나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참조물인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하셨다.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지에 왔다. (이보람)

- ✦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계속 느끼게 되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대만하신 분이구나.'라고 생각되었고, 좋은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나를 되돌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사역을 하는 도중에 덥고 많이 잘 안 통하여 힘들기도 하였지만, 그때마다 팀원들과 열심히 기도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잘 견뎌 냈다. 더욱더 주님만 의지할 수 있었다. (최지현)
- ✦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이 가정에 보내셨구나!'라고 생각했다. 애들은 웃으면서 피해 다녔지만, 정작 복음을 전파할 때는 진지하게 들었고, 그 아이들이 주님이 준비하신 영혼이라고 생각되었고 그들에게 더욱 복음을 전파하여서 그 땅에 십자가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한다. (유지현)
- ✦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이 예비하신 많은 영혼들을 만날 수 있었다.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며 영접하게 되는 은혜가 넘치는 순간들이었다. (박준문 교사)
- ✦ 지난 3개월 동안 완벽할만한 행정적 준비와 영적으로 무장을 하였다고는 하지만 막상 떠나기 직전에는 아무 것도 준비된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무엇보다 주님 앞에서는 아무 쪽에도 들도없는 죄인이었음을 오히려 깨닫게 되었다. (홍순호 교사)
- ✦ 축호전도와 어린이사역 등 현장에서 한 영혼에게라도 더 복음을 듣게 하려는 모든 팀원들의 믿음과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에서 주님께 감사할 따름이었다. (채홍표 교사)
- ✦ 주부회를 발발해 하는 찬양으로 우리는 하나 되었고, 25개 문장만으로도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학생들의 믿음을 보았다. 우리 모두가 기뻐했던 선교였다. (박현준 교사)

준비된 일꾼을 사용하시는 주님

저에게 있어서 이번 선교는 세 번째 사역이었고,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3년만의 선교였습니니다. 오랜만에 가는 선교여서 그런지 많이 바뀐 선교준비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게 '자기부인'이란 영적 깨우침을 주셔서 많이 회개하게 만드셨습니니다. 과정 과정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미리 예비하신 영혼들을 통해 사역 가운데 감사함으로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 주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심을 또 한 번 체험하였습니다. 저희 조는 사역하는데 있어서 영혼들을 대할 때 너무나 부족한 언어로 많은 실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몇 개 되지 않는 문장으로 그들에게 말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자 종교이카라는 듣기 싫다며 바로 거절하고 다시 재갈 걸을 가는 그들을 보며 저희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니다. 우리는 대학교 주변에서 노방전도를 하였는데 거기서 우리

는 놀라운 체험을 하였습니니다. 우리는 큰 길을 따라 내려가 다 보이는 평탄한 골짜기 있던들 들어가지고 해서 보이는 골목길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한 대학생들을 만났습니니다. 저희는 차근차근 그 대학생과 현지어로 대화를 하여 친해지게 되었고 그의 어린 여동생과 친구들이 모여 저희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상황에서 당대하 "예수님을 믿으라."고 외쳤고 그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 그 대학생의 어린 여동생에게 노트에 오려붙인 전도지내용과 영접기도를 모두 읽게 하였습니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였고 우리가 그 골목을 나설 때까지 우리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주변에 공안이 워낙 많아 성경을 전해주시 못했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 하게 되어 전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에 감사드렸고 그 무엇보다도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잡아주시고 예비된 영혼을 준비해주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항상 저 스스로를 의지하고 고대하고 하려고 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저를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심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정희(대학부 1팀))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4월 1일(화) - 4월 9일(수)	20교구 6지역	이근호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3개 팀)

기 간	팀	팀 장
3월 27일(목) - 4월 4일(금)	21교구 2지역	임재봉
3월 27일(목) - 4월 4일(금)	24교구 2지역	김홍기
3월 27일(목) - 4월 4일(금)	24교구 5지역	허형철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딩동댕~~~~딩~동~딩~~~~.” 새벽 3시, 기상을 알리는 알람소리에 벌떡 일어나서 깬다. 늦어도 새벽 3시 15분에는 나사야 안산에서 화성지역 식구들을 차로 태워서 새벽기도회에 늦지 않게 올 수 있다. “집사람!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월요새벽기도회에 함께 가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럼요! 잘 차가 없어서 못 가지요!” 반갑게 대답해주는 집사람이다. 차편이 없어서 월요 새벽기도회는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신입구역장님과 월요새벽기도회에 함께 가자는 말에 너무 반기워하시니 화성지역의 구역식구들이다. 충현교회에 등록한 지 몇 년이 되었지만 처음으로 월요새벽기도회에 가게 되었다며 좋아 하시면서 구역식구들과 함께 가자고도 말하였다. 화성지역의 식구들이 가득한 차에는 귀엣말이 예은이를 등에 업고 나오신 집사람도 계시다. “예은이를 집에 두고 교회에 갔다 와도 되지 않아요?”라는 말에 집사람은 “아니예요! 예은이가 집에 있으면 예은 아빠가 동네교회 새벽기도회에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와야 해요!”하며 대답했다. 교회에 도착하니 아침공기는 싸늘하고 추웠다. 예배당에 들어가는데 위임목사님이 예은이를 살뜰히 어루만져 주셨다. “위임목사님은 항상 감내상 위에서만 보였는데 겉에서 밝게 되어 있구나!”라며 좋아하시는 집사람을 바라보며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다.

위임목사님은 자기복음을 감내하셨다. “들고 귀는 자는 들을지이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라고 간절하게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유난히 나의 마음을 찔렀다. 평소 나는 ‘우리들은 죄인이나!’ 언제나 회개라고도 말씀하시는데 나! 라고 단순히 생각했었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렀다. 말씀 중에 자복(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시인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약속하는 것)과 회개(자복한 죄를 다시 행치 않는 것, 내 뜻대로 아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의 뜻을 새롭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오늘에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미련했는지! 아니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달아졌다. 지금껏 나는 매일 자복을 회개로 착각하며 진정한 자복도, 참된 회개도 없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주님 미련한 죄인이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저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세요!” 사순절과 고난주간의 새벽기도회에 빠지지 않고 동행한 화성지역 식구들에게 감사하며 무엇보다 회개의 복음을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다.

정승진(인수집사, 22교구)

나의 나 된 것은

이번 사순절과 고난주간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맛껏 누리보려고와 작심하고 새벽기도회에 열심히 나갔다. 무엇인가 의미 있고 뜻있게 고난주간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금요일 특별집회 때까지 기쁨과 감사는 없었고 매우 무거운 마음과 냉소적 모를 죄책감 가운데 사달리고 있었다. 특별하게 보내고자 나갔던 새벽기도회는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종교적인 의무가 되어 버렸고, 켓바퀴처럼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을 제대로 한 번 묵상해 보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그저 내 눈 앞에 처치하고 끝내야 할 산타미 같은 일에만 여전히 매달리고 있었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위해 보혈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라는 부름과 불만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매년 맞이하는 고난주간과 성금요일 그리고 부활절로 이어지는 이 은혜의 절기 때마다 나는 무엇인가 새롭게 결심하고 또 결심하지만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읊음에도 풀지 못한 채 ‘이번에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성금요일 특별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은 이러한 나를 그냥 내버려두시지 않았다. 보혈로 가득한 말씀과 찬양 그리고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은 다시 한 번 사랑의 손길을 나에게 내미셨다. 어두운 내 눈을 어시고 나의 허물과 죄를 보게 해 주셨다. 여전히 ‘내가’ 싶고 있어 무엇인가 ‘나의 의로움’으로 주님을 감동시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내 죄악 된 심령을 주님은 깨뜨리셨다.

말씀을 통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려 달신 고난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해 주셨다.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의로움이냐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임을 다시 한 번 증거해 주셨다. 성전신의 떡과 잔을 대하면서 비로소 나는 진실로 회개하였다. 동시에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감사로 가득했다. “십자가의 예수님, 더 이상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죄를 덮어 주시고 용서하시며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양성민(청년1부)

십자가의 보혈

고난주간, 그리고 성금요일, 예수님이 우릴 위해 우리의 죄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가시뎡관을 쓰시고 모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수치스러움을 견디시면서 골고라도 가셨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힘드셨는데 나는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힘든 착하고 올곧은 패혈을? 저를 내 상상이 너무 힘들다는 핑계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지 못했던 나는 위임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많은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다. 왜 주님만 바라본다고 하면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기 바쁘던 나였고, 외식적이었던 내가 뭐가 예쁘다고 그런 대우를 받으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 그 고통을 생각하니 집회 내내 눈물이 흘렀다. 내 추악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흘리신 그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나는 완전한 죄 사함이 이루어졌고, 내 영혼을 덮어 줄 수도 있고, 영원한 속죄의 길을 열어 주신 것에 대해 나는 무조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찬송과 말씀, 성만찬을 통해서 성금요일 특별집회는 말 그대로 나에게 정말로 특별했다. 나에게 많은 회개와 감사의 기도제목을 주시고 내가 이 힘든 세상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알게 해주셨다. 회개하고 뉘돌아서서는 다시 죄를 짓고,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로 가려하는 흠 많은 죄인이지만 이런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셨다. 나는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죽는 순간까지 살아 계신 내 주님, 예수님만을 증거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늘 기도하며 힘을 찾았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고 내 마음의 중심이, 내 목표가 늘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간절히 기도한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세.” 아멘.

이지윤(성도, 3교구)

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그 사랑

중학교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처음 가게 되었다고 동교회로 미션스쿨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을 것이다. 중학교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처음 가게 되었다고 동교회로 미션스쿨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을 것이다. 중학교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처음 가게 되었다고 동교회로 미션스쿨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을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30년간 졸업없이 두드러진 주의 사랑에 어머니가 갑자기 두 손을 드셨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충현교회에 등록한 어머니는 모든 예배와 집회에 참석하시며 말씀을 배우시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

토록 필박하고 미워하던 예수님께 “너무나 죄송해 고개를 들지 못했었다.”며 어머니는 진심으로 회개하였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간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신 후 어머니는 주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가셨다. 그러나 나는 한편으로 걱정하였다. 어머니가 떠나신 후 심판대 앞에 서서 “그저 나 행한 죄 뿐 아니라, 또 고개 들지 못하던 예수님의 못자리만 잡고 부끄러워 고개 숙일 어머니만 생각하면 가슴이 매어 왔다.

그런데 지난 성금요일 특별집회의 설교 중 “이 예수를 하느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복체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롬 3:25)라는 말씀을 들을 때 눈이 번쩍 떠졌다. 어머니는 80평생 하나님을 대적하며 예수님께 주먹질하였다. 더 불어 우리 가족도 예수님께는 이쁜 가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머니께 사랑을 베푸셨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험한 갈보리 언덕을 올라 십자가에서의 극심한 고통 중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해주셨다. 이 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사랑으로 어머니는 구원 받았을 것이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사하여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인인 길을 기다가도 눈물을 흘린다.

윤옥희(집사, 6교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행정위원회



진승홍(장로, 행정위원장)

이 잘 이루어지도록 사무국·교육국·선교위원회·음영실·편집국(주간총현, 교제연구)·기도원·동산의 모든 행정위원회 일꾼들은 깨어 기도하며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예배를 비롯한 모든 집회와 모임이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예배)를 드릴 때 수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온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예배위원들의 준비 외에도 예배에 필요한 적절한 시설 및 기구를 준비하는 것을 비롯하여 실내 온도, 음향, 안내, 주보 등 세심한 준비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습

니다. 또한 각 위원회 및 부서의 집회와 모임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주일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각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관리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복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행정위원회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참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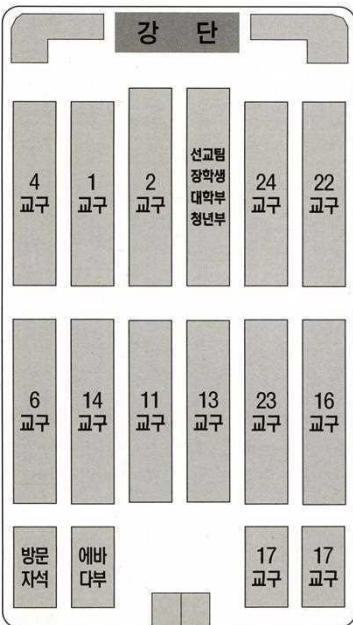
교회의 재반 사함들을 관리 및 운영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교회에 오면 모든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주차 문제입니다. 공예배나 금요찬양집회 시에 주차안내 봉사자들이 있음에도 지시에 불복하고 멋대로 주차하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원활한 주차를 위해서 주차안내 봉사자들의 지시에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규모 모임을 마친 뒤에는 반드시 모임 장소를 정리하시고 소등까지 해 주셔야만 불필요한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성도님들의 자원봉사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일부 성도님들이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이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자원봉사에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마음에 깊이 각인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에게 영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엡 2:8) 더군다나 예수님의 끝없는 축음이 아닌 부활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안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한 되기를 원합니다. 행정위원회는 이 귀한 사역을 위해 더욱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도 행정위원회의 일꾼들이 보혈로 충만한 예수님의 일군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일한 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함이니라"(골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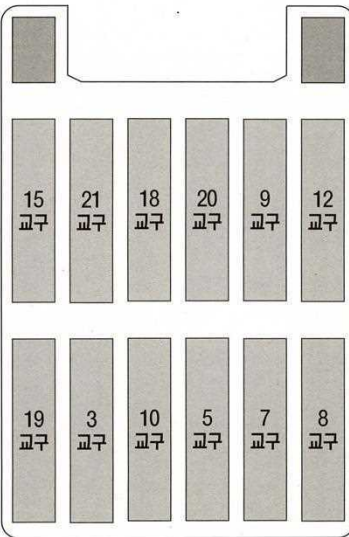
금요찬양집회 교구 작성변경

*4월 11일 (금요일)부터 시행

본당 1층 작성 배치



본당 2·3층 작성 배치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489	이한	25	외선부	노수익(5)	518	윤광현	3	초등부	권은미(1)
490	수기영	25	외선부	노수익(5)	519	이예리	25	외선부	정재홍(2)
491	루디	25	외선부	노수익(5)	520	소이서	25	외선부	정재홍(2)
492	대휘	25	외선부	노수익(5)	521	마리제	25	외선부	정재홍(2)
493	적	25	외선부	이형선(15)	522	아산기	25	외선부	정재홍(2)
494	필리제	25	외선부	이형선(15)	523	자나크	25	외선부	정재홍(2)
495	예루	25	외선부	이형선(15)	524	이창자	17	창년3부	오영준(11)
496	종알라	18	창년2부	박성명(16)	525	박세정	1	창년2부	추병철(10)
497	서희	25	외선부	이종(1)	526	유상희	2	창년1부	
498	박수영	9	창년2부	이형명(6)	527	장유미	5	창년2부	김평기(5)
499	조대성	8	창년1부	김현자(13)	528	박경남	4	창년2부	이명숙(14)
500	한규림	1	창년1부	유선진(7)	529	최희관	4	창년2부	이명숙(14)
501	변정호	21	창년1부	최복숙(21)	530	김은관	14	창년2부	
502	김성아	11	창년1부	박성명(16)	531	김유진	14	유지부	
503	남희진	10	창년3부	남준재(14)	532	오만세	2	창년1부	김정일(21)
504	하혜숙	12	창년2부	박혜숙(12)	533	최진근	7	창년2부	장일남(7)
505	유근재	8	창년2부	이옥영(7)	534	김대일	23	창년1부	박민호(24)
506	김정현	24	창년1부		535	김정현	18	창년2부	김성자(18)
507	이훈선	24	창년1부		536	백동기	3	창년2부	박종규(13)
508	성윤실	24	창년3부	문성우(4)	537	손형석	25	외선부	박준근(9)
509	김수아	8	고등부	송주은(8)	538	송준환	25	외선부	박종순(9)
510	심은	1	창년2부	원근(1)	539	모보성	3	창년1부	김경진(19)
511	문도빈	1	초등부	원근(1)	540	이희종	17	중등3부	지현미(17)
512	문도빈	1	유년부	원근(1)	541	박수일	7	창년1부	이규희(7)
513	최정현	17	창년2부	김정희(17)	542	염세현	17	창년2부	신성철(25)
514	권은호	23	전목회(7)		543	신영호	17	예배대부	신성철(25)
515	유서연	6	창년1부	조준희(7)	544	장유진	10	창년2부	박종석(4)
516	박민지	18	중등3부	김병철(20)	545	윤예진	10	창년2부	박종석(4)
517	윤영민	3	유년부	권은미(1)	546	조호수	16	창년1부	박은영(1)

* 중한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